



안녕하세요? 저는 손현주수녀입니다. 아들이 귀한 집안에 넷째 딸로 태어났지만 바로 아래 남동생이 태어나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렸죠. 저는 유아세례를 받고 10살에 첫영성체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꿈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는데 성모님으로 보이는 여인이 어머니 손에 목주를 주시는 태몽을 꾸고 저를 낳으셨



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가끔 떠오르면서 수도자로 살아야 하는 운명일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반대 하셨지만 저의 종신 서원식에 오셔서 “이젠 뼈를 묻어라”하셨죠. 어머니의 적극적인 설득과 기도로 1995년 입회하였습니다. 본당사도직과 피정사도직 관구회계보조 사도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도직으로 2006년에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회계업무를 하면서 장애인 친구들과 빵도 만들어 팔고 유난히 저를 따르는 여성 장애인



들과 함께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 인천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북한이탈주민 자녀)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이탈주민과 그의 자녀들, 중도 입국 아동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해야 했던 부모들은 일을 하느라 바빴고 자녀들 또한 어려운 교육환경과 친구 관계, 가족 간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후 아동센터에 온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과 수녀님들! 고맙습니다. 지금은 폐쇄되어 너무나 아쉽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애타는 엄마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부터 저는 씨튼이주여성쉼터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과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 말하는 MZ세대가 주로 입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관습, 언어, 본국에서 각기 다른 교육 수준과 생활환경 속에서 자란 그녀들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고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맞추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정말 다름을 살펴보고 인정



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저는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고 잘 들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생활

28년! 아직도 부족한 저에게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이주여성과 아이들 안에 찾아오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뢰하실 만큼 담대하시니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빈첸시안가족에게 보낸 편지 글에서)





Hello! I'm Sister Son, Hyeon Ju. I was born as the fourth of five girls and a boy. My parents were desperate for a boy, so my younger brother's birth eased my mother's labor. I was baptized as an infant and had my first communion at ten. When my mother conceived me, she dreamed that a lady looking like the Blessed Mary put a rosary in her hand. My mother used to tell the story to me, and I often wondered if my destiny was to become a religious sister whenever I was reminded of her words.

Later, when I joined the community and professed my final vows, on that day, my father, who did not want me to be a sister, told me to remain here until I die. My father's mind changed by my mother's persuasion and prayer to permit me to enter the community. I joined the community in 1995.



I ministered in parishes and worked as assistant provincial treasurer. I also served at Seton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in 2006 in the finance department, baking and selling bread with friends who are physically challenged. Especially for the female disabled workers who had close relationships with me, I provided counseling and we could grow together by helping one another. In 2011, working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ir children at the Stepping Stone



Local Center for Children, I met parents who were struggling to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Their children were having a hard time with different educational environments,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I am still so grateful to the teachers and sisters who committed to teaching and caring for the children in those days. I am sorry we left this center; however, I had a chance to know the mother's heart and what she felt to see her child in need and looking desperately for ways to help them. Since 2019, I have been ministering to im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suffering from domestic violence at Seton Immigrant Women's Shelter. Nowadays, the residents are the most so-called "MZ generation." It's time for us to respect their values and dignity established and nurtured in different cultures, customs, languages, of their own countries as background rather than asking them to adjust themselves to our languages and cultures.



These days, I try to express myself in soft words and listen well, then I can be grateful for everything. Twenty-eight years of my religious life! And I am thankful to God who came to me in the disabled, North Korean defectors, migrant women, and children. *"Let us pray and act, for the Lord is bold enough to hear our prayers and trust us"*(from a Letter to the Vincentian Family).